

머 리 말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분과회 일본측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어, 2002년 5월 이래, 중근세일한관계사에 관하여, 한국측 위원과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왔다. 본 보고서는 2분과 일본측 위원회가 실시해 온 연구활동의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과회의 구성

제2분과회 일본측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연구위원

田代和生(慶應義塾大學文學部教授)

吉田光男(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教授)

六反田豊(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助教授)

연구협력자

伊藤幸司(山口縣立大學國際文化學部助教授)

北島万次(共立女子大學文學部教授)

橋本雄(九州國立博物館設立準備室研究員)

米谷均(學習院女子大學時間講師)

분과회의 담당

본 분과회는 중근세사를 담당하였다. 일본사에서는 鎌倉時代부터 江戸時代까지, 한국사에서는 高麗·朝鮮兩王朝의 시대에 해당된다.

연구의 기본방침

일본측위원회는 공동연구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점을 기본방침으로 정했다.

- (1) 공동연구의 목적은 일한양국의 역사연구자·역사교육자 및 교과서집필자들에게 중근세 일한관계사에 관하여 精選된 學術的情報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專門的研究者가 아니면, 研究의 현황·도달점·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운 하는 현상을 감안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우선한다.
- (2) 제약된 시간안에 최대한 성과를 올릴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제를 어느 정도 한정하여 조기에 연구를 심화시킨다.
- (3) 공동연구의 주제는 중근세에 있어서의 일한관계사 상의 중요문제로 한다.
- (4) 이 공동연구를 계기로, 새로운 연구를 출발시킨다.
- (5) 일한양국의 차세대 연구자를 위한 研究基盤을 조성한다.

연구주제의 결정

2002년 7월 7일에 개최된 제2회 제2분과회 일한합동연구회에서, 공동연구의 주제를 현재의 중근세일한관계사연구에서의 최중요과제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선택된 주제는 아래의 세개이다.

- ① 僞使
- ② 文祿慶長の 役(壬辰倭亂)
- ③ 朝鮮通信使

연구책임체제

일본측위원회는 세개 주제에 각각 책임위원을 정하여 담당했다. 즉 田代위원이 僞使、六反田위원이 文祿·慶長の役、吉田위원이 朝鮮通信使를 각각 담당하고, 각각 研究協力者에게 연구를 의뢰했다. 한편 共同研究라고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전위원이 모든 주제에 관여했다.

연구의 진행

공동연구는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했다.

제 1단계에서는 각 주제별로 研究史의 정리를 했다. 明治時代に 近代歷史學研究가 개시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발표된 著書·論文에 대하여 검토를 했다. 그 결과 연구의 역사와 도달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제 2단계에서는 제1단계의 연구사 정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과제 몇 개에 대하여 개별적인 실증연구를 행했다.

또 제1, 제2단계를 통하여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본·한국에서 사료조

사를 행했다. 그 결과 사료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어, 장래의 연구를 위한 기초를 조성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연구계획의 진행과 성과에 맞추어서 3부로 구성했다.

제1부는 3개의 연구주제에 관한 학술사적 정리검토를 행한 연구사편이다.

明治時代 이래, 2004년까지의 1세기만에 가까운 기간에 일본에서 발표된 諸學說을 網羅的으로 조사하여, 研究文獻目錄을 작성하고 主要學說을 중심으로 研究史의 정리를 실시했다. 한국측의 연구사를 대조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일본측연구와 한국측 연구의 共通點과 相違點이 파악된다.

僞使연구는 田代和生위원, 文祿・慶長の 役연구는 六反田豊위원, 通信使연구는 吉田光男 위원이 각각 최종책임자가 되어 정리했는데, 진위원과 연구협력자가 작성에 협력하였고, 분과회 전위원에 의한 검토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 따라서 작성자는 各責任者와 全委員 및 研究協力者가 연명으로 했다.

목록에 수록한 著書・論文은 僞使研究가 약 100편, 文祿・慶長の 役研究가 약 450편, 朝鮮通信使研究가 中世・近世를 합쳐 550편으로, 合計1100편을 넘는다. 본 목록에서는 학술적 가치를 가진 著書・論文만을 수록 대상으로 하였다.

제2부는 學說史的檢討에서 抽出된 새로운 과제를 개별적으로 연구한 主題論文編이다.

伊藤幸司논문 <日朝關係에 있어서 僞使의 時代>는 14세기말부터 17세기전반까지를 僞使의 時代 라는 시점에서 재구성하여, 중세일한관계의 구조적 특질을 抽出한 것이다. 일한관계에서 僞使단, 조선왕조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자 이외의 제삼자로, 정규의 日本使節을 가장하여 공공연히 通交貿易을 행한 자이다. 伊藤논문은 僞使의 발생부터 전개・확대・변용의 전과정을 추구하고, 그 실태와 규모를 밝히고, 그것이 중세 동아시아 通交圈共通의 존재라는 점을 논하였다.

橋本雄 논문 <朝鮮國王使과 室町幕府>는 중세일본을 내방한 조선사절에 대한 접대 실태를 해명하여, 조선 등에 대한 일본의 외교관을 추구한 것이다. 對馬에서 瀬戶內海를 거쳐, 京都까지, 조선사절에 대한 해상세력에 의한 경호와 日本國王(室町殿)의 응접을 검토하여, 室町幕府가 조선사절을 「가상의 조공사절」로 간주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米谷均 논문 <朝鮮侵略前夜の 日本情報>는 豊臣秀吉의 침략이전에 각지에 유포되어

있던 조선의 征明嚮導情報에 주목하여, 당시의 日本有事情報의 전과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복잡하게 뒤 섞인 정보가 조선측을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드러났다.

六反田豊논문 <文祿·慶長の 役(壬辰倭亂)開戰初期에 있어서의 朝鮮側の 軍糧調達과 그 輸送>은 개전부터 3개월간의 군량문제를 논한 것이다. 이 논문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 상세한 내용이 밝혀지게 되어, 전쟁수행 문제의 실태를 해명할 수 있게 되었다.

제3부 補論編은 공동연구회에서는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본 공동연구의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 첨부된 논문이다.

吉田光男논문 <日本에서의 韓國中近世史研究教育基盤—大學·學會·研究情報—>는 일본에서 韓國中近世史研究의 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明治時代부터 현재까지의 中近世史를 중심으로 한 韓國史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大學·學會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그 실태와 의의를 밝힌 것이다. 아울러 일본에서의 日韓關係史·韓國史研究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정보에 대하여도 소개하였다.

田代和生논문 <朝鮮國書·書契의 原本데이터>는 제2부의 伊藤논문의 내용과도 관련하여 일본에 남아 있는 근세 한국 外交文書에 대한 科學的檢討를 시도한 것이다. 제2분과의 일본측위원 및 연구협력자는 가능한 한 전원이 참가하여 일본전국11개소에 보관되어 있는 朝鮮國王國書25점과 書契17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얻어 料紙의 紙質分析과 螢光X線에 의한 印鑑朱肉의 成分分析을 실시. 진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토를 했다. 그 결과 보고이다. 장래에는 데이터를 공개하여 學界共有財産으로 할 것이다.